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Ⅲ 사랑의 사람, 하늘이 열린다.

1. 인플루언서 (influencer)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follower: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영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사람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영향력'으로 얽혀 있다. 지금은 영향력이 힘이 되는 세상이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향력의 결과'이다. 영향력은 반응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이며, 그에 대한 반응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예수님의 힘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치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상태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며 그들은 예수님 옆자리를 탐내었다. 가롯유다를 보라.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혁명을 통한 민족의 해방이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해방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은 가롯유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왜?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 영향력과 권위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그리고 전 세계 부동의 베스트셀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다. 무엇이 영향력일까? 영향력은 '권위'와 같다. '권위'는 공동체의 인정으로부터 온다. 나 혼자 스스로 인정한 것을 권위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는 항상 공동체의 동의로부터 온다. 권위를 얻는 다른 방법은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할 때이다. 이 권위는 제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범함이 영향력이 되는 시대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는다. 그것이 영향력이 된다.

3. 진짜 영향력,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영향력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에 반응할까? 답은 분명하다.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본질 위에 설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다.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였다. 사람들은 '진짜'에 반응했다. 그리고 오늘 진리로 표현되는 '진짜'의 힘은 엄청나다.

왜 사랑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될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권력, 명예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세상의 힘과 가치로 대변되는 위의 요소는 결국 한계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초월적인 영향력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다. 사랑의 존재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터 위에 존재한다. 그 사랑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풍성하게 해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3:16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 한계를 넘어서다.

[로마서 8:37-39]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안에 완성된 사랑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넘게 할 수 있는 실재적 능력이 된다 (37절). 죽음이라는 한계를 사랑이 넘어선다(39절)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본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능력은 사람의 한계를 모두 넘어선 하늘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4:12]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인간의 모든 한계가 ‘초월’되는 이 놀라운 순간이 ‘하늘이 열린 곳’이다.

5. 본질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능력과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으로 이기지 않는다. 힘의 대결로 이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탄과 힘의 대결로 경쟁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예수님을 자신의 차원으로 내리려 했으나, 예수님은 절대 그 싸움에 말리지 않으셨다. 다른 차원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 더 큰 차원이 작은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차원이 영이며 사랑이다.

그 정점의 사랑이 십자가이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힘에 결박되어 죽으셨다.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같은 차원의 전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같은 차원의 전쟁은 끝이 없다. 파멸과 상처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차원의 힘이 바로 ‘사랑’이다.

본질은 어떤 신학자의 관점, 논평, 해석도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본질적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그 사랑만이 진짜 인류가 살 길을 만들 수 있다.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때이다.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탑(세상의 힘의 원리)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한 번에 흩어지며 무너진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강력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할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늘이 열려야 한다. 하늘이 이 땅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적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했고,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이끄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라.